

numbers 제 27호



주요 내용

2019. 12.20

1. 한국인의 기부, 기부 단체의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기부 실태 및 인식 조사)
2. ① 초·중·고 장래희망 직업에 관한 인식 조사
② 1인당 노동 소득과 소비 조사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

‘한국인의 기부’, 기부 단체의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언론에서는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
이 많은 우리 국민은 물질적이든, 마음으로든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이다. 최근 몇 년
간 기부 단체 횡령 등 리더의 비리, 부패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불가지면서 기부 단체
에 대한 투명성과 불신이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것 같다. 즉 한국인의 기부 문화에 있
어 기부 단체의 투명성/신뢰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기부 단체 중 하나인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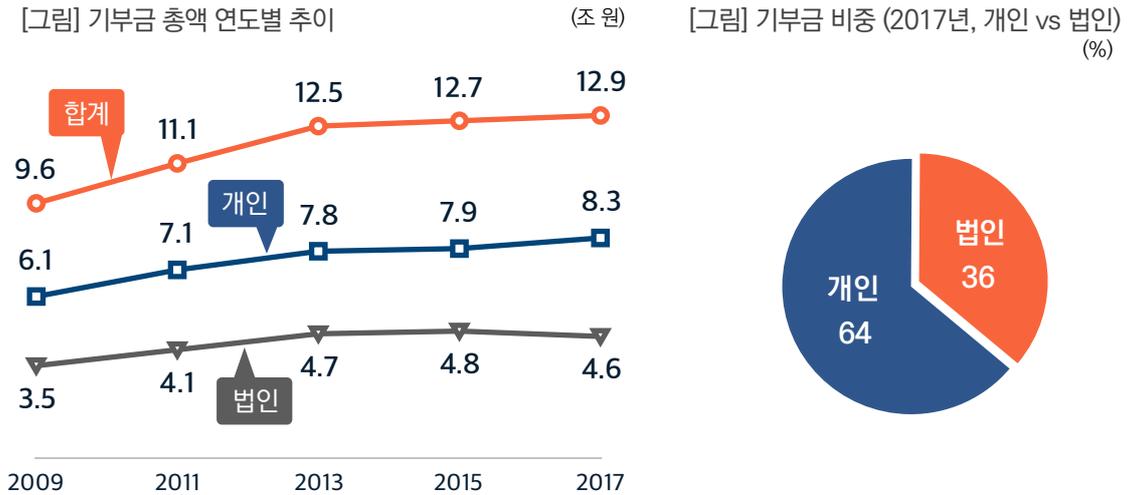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27호는 한국인의 기부 실태에 대해 살펴
보고, 기부 단체로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알아보기로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전국민 기부금 총액, 해마다 약간씩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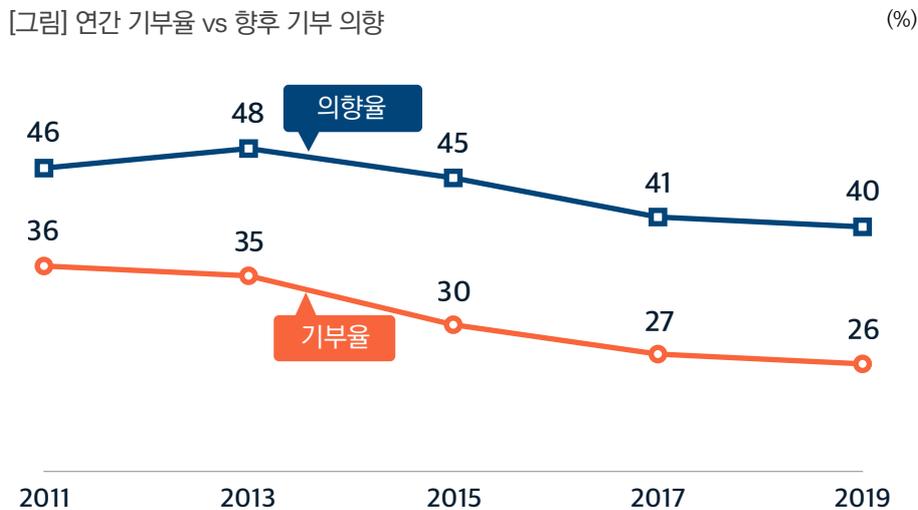
- 개인 기부금 비중이 법인 기부금 비중보다는 높은 가운데, 기부금 전체 금액은 약간씩 상승하나, 법인 기부 금액은 감소세를 보임



*자료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1~2017, 각 년도), 사랑의열매, '2019 기부 및 사회이슈 트렌드', 2019.01

● 그러나, 연간 기부율, 향후 기부 의향 모두 감소 추세임

- 기부 인덱스 관련, 매년 기부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연간 기부율, 향후 의향률 등 기부 지표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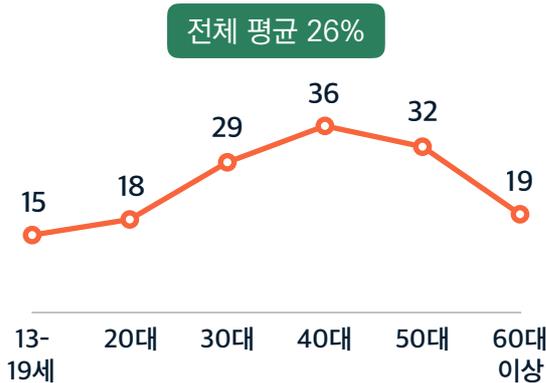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년도별 사회조사 결과(전국민 만13세 이상, 37,000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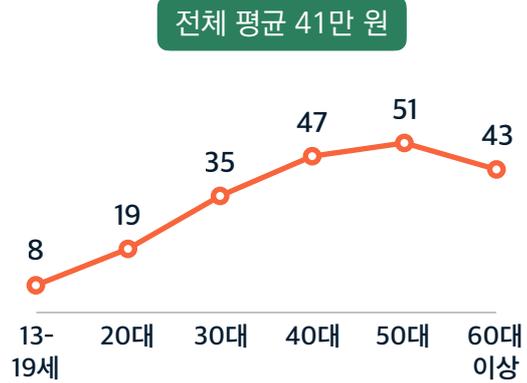
● 기부율은 40대에서, 기부 액수는 50대에서 가장 높음

- 연간 기부율은 40대가 36%로 가장 높고, 기부 액수는 50대가 51만 원으로 가장 높음

[그림] 연령별 연간 기부율(2019) (%)



[그림] 연령별 1인당 평균 연간 기부 액수 (2019)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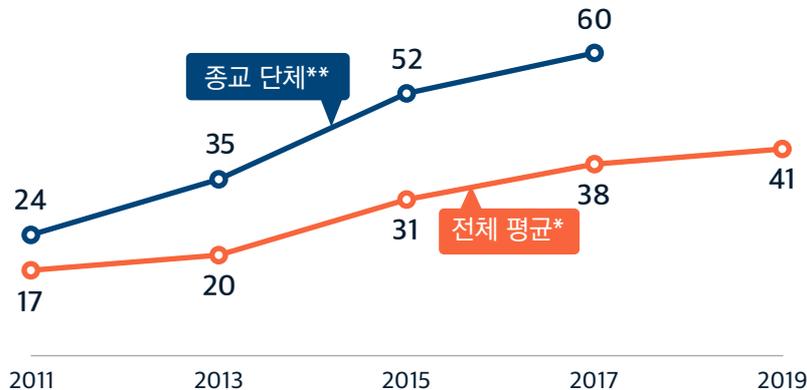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 사회조사 결과', 2019.11.25
(전국민 만13세 이상, 37,000명)

● 2017년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기부금 38만 원, 종교 단체 기부금 60만 원(기부자 기준)

- 1인당 현금 기부금은 2017년 기준 전체 평균이 38만 원인데 반해, 종교 단체는 60만 원으로 종교 단체가 전체 평균보다 1.6배 가량 더 많음

[그림] 국민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 (전체 vs 종교 단체, 연도별, 기부자 기준) (만 원)



*자료 출처 : 통계청, 연도별 사회조사 결과, (전국민 만 13세 이상 37,000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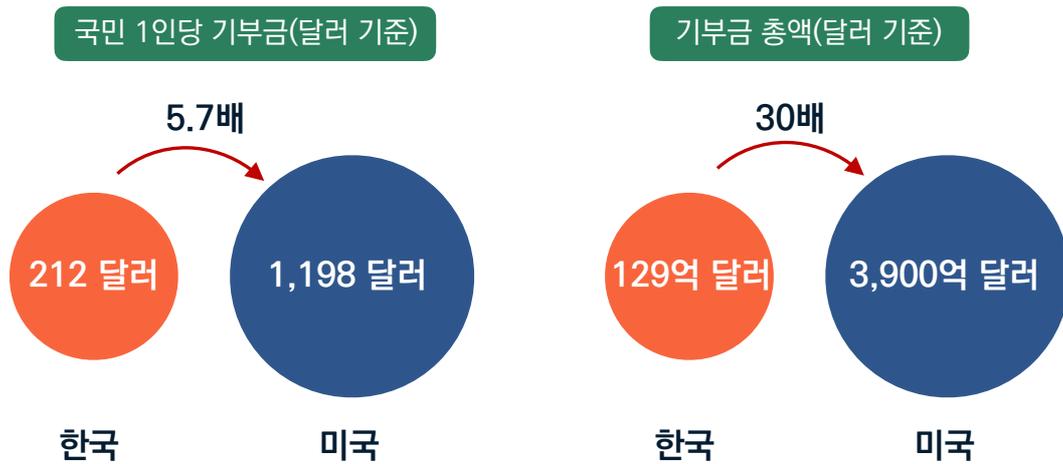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연도별 사회조사 결과 원자료, 보건사회연구원, '나눔실태 2017 보고서' 2018.12.
(전국민 만13세 이상, 37,000명 이상)

*** 2019년 종교 단체 기부액은 미발표

2 한국 vs 미국 기부금 비교, 국민 1인당 기부금, 미국이 한국보다 5.7배 많음

- 2017년 기준 한국과 미국의 1인당 기부금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212달러, 미국은 1,198달러로 무려 5.7배나 차이가 남

[그림] 한국 vs 미국 기부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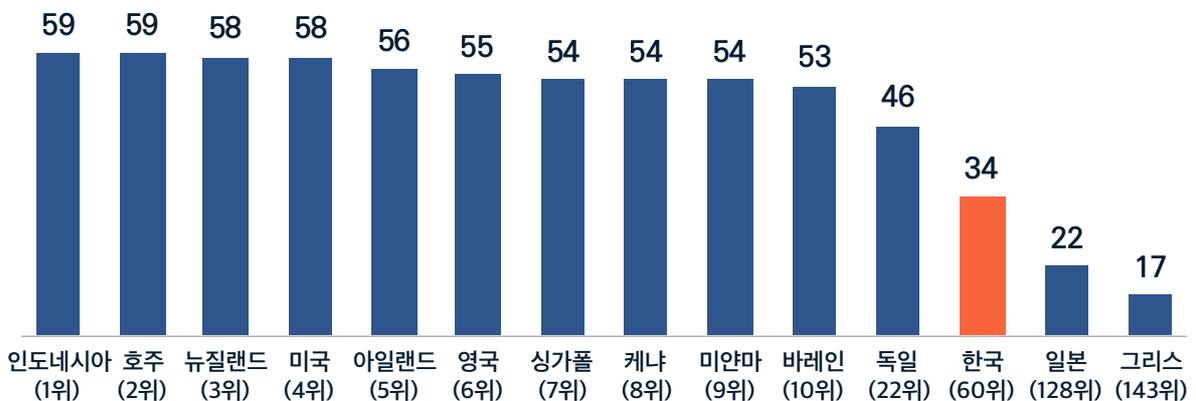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 국세청(2017), '국제통계연보', 통계청 '사회조사(2017)' 미국 Giving USA Foundation(2017), Giving USA; Charities Aid Foundation(2018)

● 세계 기부 지수에서 146개국 중 한국은 60위로 중위권에 있음

- 세계 기부 지수(World Giving Index 2018)에서 전체 146개 중 1위는 인도네시아가 기록했으며, 미국은 4위, 한국은 60위로 중위권이며, 일본은 한국보다 낮은 128위에 위치함

[그림] 세계 기부 지수(World Giving Index Score**) (%)



*자료 출처 : CAF(2018), 'World Giving Index 2018', 2018.10

**World Giving Index Score : 낯선 사람 돕기, 현금 기부, 자원 봉사 시간의 합계 평균 지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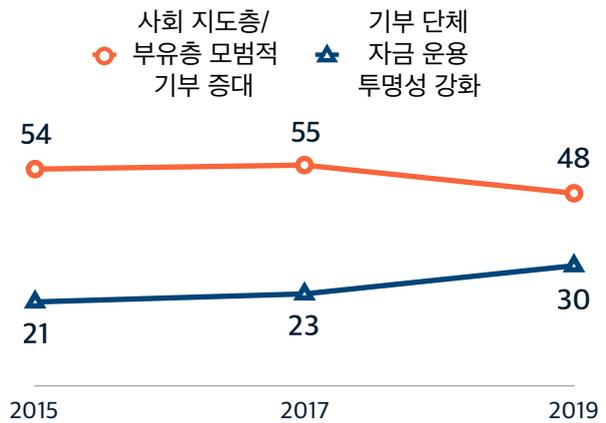
기부의 허들, 기부 단체의 기부금 투명 운영에 대한 불신

-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여유 없어서'가 단연 1위인데, 기부 단체 불신 요인이 지난 2년 사이에 크게 증가함

[그림] 기부하지 않는 이유(주요 이슈, 연도별) (%)



[그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상위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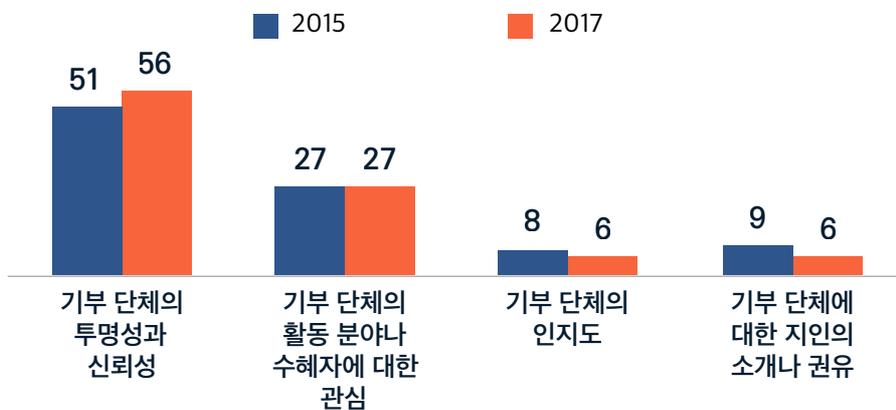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연도별 사회조사 결과(전국민 만13세 이상, 37,000명 이상)

● 기부 단체 선정 시 중요 기준, 투명성과 신뢰성 56%

- 기부자 절반 이상이 '기부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부 단체 선정 시 중요한 요건으로 응답하였으며 2015년 보다 5%p 증가하여 매년 투명성과 신뢰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림] 기부 단체/기관 선정 시 중요 기준 (2015 vs 20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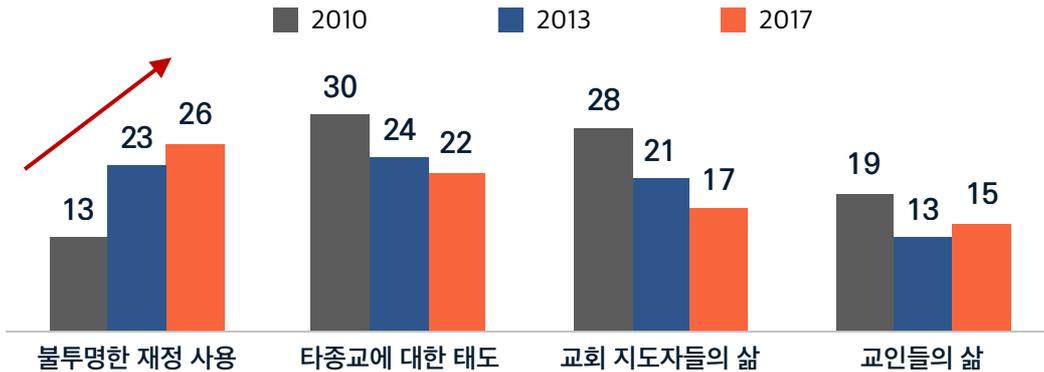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아름다운재단, '2018 기빙코리아 조사(일반국민조사) 보고서', 2018.7 (전국 19세 이상, 2,011명, 웹조사, 2018.05)

● 한국 교회 신뢰도 제고 위한 개선점, '불투명한 재정 사용'을 1위로 지적함

- 한국 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불투명한 재정 사용을 1위로(26%)로 응답했는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그림] 한국 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상위 4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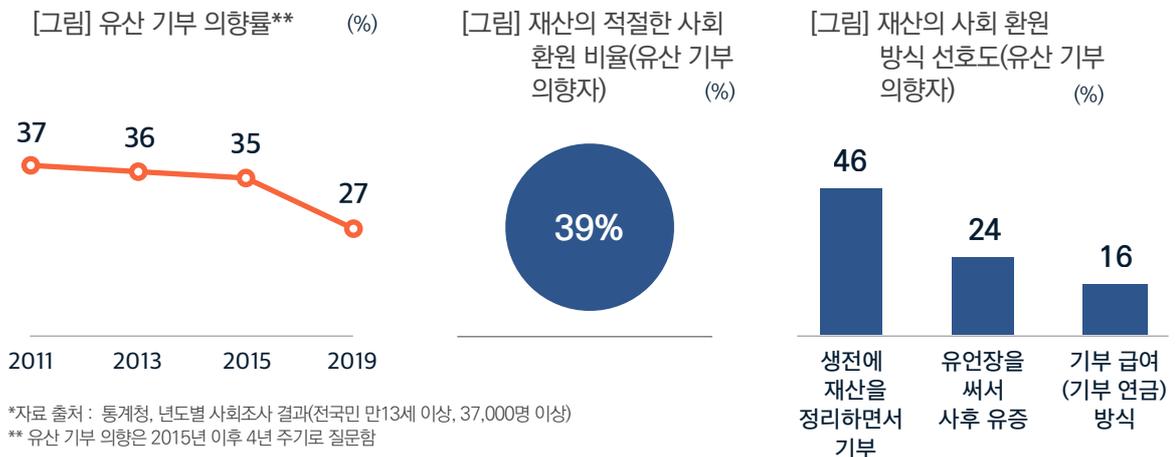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2017.03.03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 유무선 전화 조사, 2017.01)

4

유산 기부 의향자, 자신 재산의 39%를 사회 환원하기 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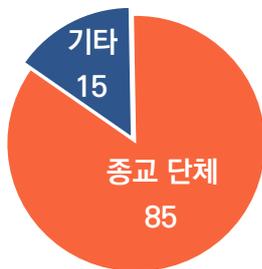
- 유산 기부 의향률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27%로 나타남
- 재산 중 적절한 사회 환원 비율은 평균 39%로 나타남
- 재산의 사회 환원 방식은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면서 기부'하겠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높음
- 미국의 경우, 유산 기부는 2017년 기준 4,100억 달러인데, 전체 기부금의 약 9% 정도임(Giving Institute, Giving USA)
- 한국은 아직 유산 기부에 대해 측정 지표가 없는 실정임



5 일반 가구 기부금 중 85%, 종교 단체 기부

- 일반 가구 기부금 중 '종교 단체 기부'가 85%를 차지함
- 종교인의 월 평균 헌금액의 종교별 비중을 보면 개신교가 56%로 가장 많이 차지함

[그림] 일반 가구 기부금 유형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7 가계 동향 조사(2018.05.30), 보건사회연구원, '나눔실태 2017 보고서' 2018.12.

[그림] 종교인 1인당 월 헌금액 비중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2018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2018.07.02 (개신교인/비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7.11)

6 기부자가 비기부자보다 삶의 만족도 높음

-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기부자가 비기부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삶의 만족도 (기부자 vs 비기부자) (만15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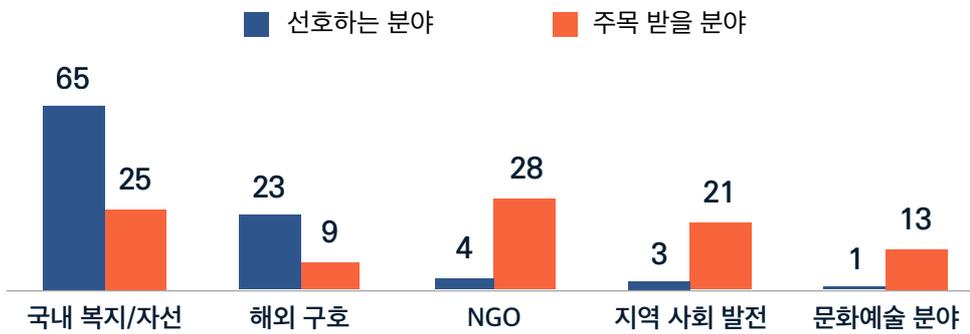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17 사회조사 원자료, '나눔실태 2017 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2018.12.

7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 기부자들 현 선호 분야 3%에서 향후 주목받을 분야 21%로 대폭 상승

- 기부 전문가들은 현재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로 ‘국내 복지/자선’을 1위로 꼽음
- 향후 기부자들의 주목 받을 분야로 ‘지역 사회 발전’이 21%로 현 선호 분야 비율(3%)보다 크게 높아졌는데, 교회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그림] 현 기부자 선호 분야 vs 향후 기부자의 주목받을 분야 (%)



*자료 출처 : 사랑의 열매, '2019 기부 및 사회이슈 트렌드', 2019.01(기부 전문가 80명 대상, 2018년).

8 시사점

12월 13일 MBC 뉴스에 인천의 기초생활수급자인 부자(父子)가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훔친 사건이 방송된 후 전국에서 온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난이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돕는 마음이 큰 민족이다. 그러나 갈수록 연간 기부율과 기부 의향률 등의 기부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3p 두번째 그래프).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된 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기부 단체의 투명성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모 자선 단체의 비리, 대표의 갑질 논란, 대표의 고액 연봉, 과도한 운영비 등의 문제는 기부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다. 또한 정말 후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부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가 과거 수년간 전 세계 기부지수 1위를 차지했고, 인도네시아가 현재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걸 보면, 꼭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기부는 가치관의 문제이다. 그래서 기부자가 비기부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8p 두번째 그래프).

교회의 사명 중 하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돕는 것이다. 실제 교회는 구제와 사회봉사를 어느 사회단체보다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보듯이 일반 가구의 기부금 중 85%가 종교 단체로 가고 있다(8p 첫번째 그래프). 놀랄만한 숫자이다. 그만큼 종교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부금의 전달통로로서 내부적인 행정/유지 비용은 가급적 줄이고 최종 수혜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달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다.

이번 보고서에서 살펴 보았듯이, 기부의 가장 큰 허들은 ‘기부 단체의 투명성/신뢰도 문제’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은 한국 교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불투명한 재정 사용’을 가장 높게 지적했다(6-7p). 교회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교회 헌금의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교회 내부 시스템을 갖 추기를 제안드린다. 교회에 헌금하는 분들이 재정 사용에 대해 불신하지 않고 신뢰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한국의 가장 큰 기부 단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될 것이며, 한편으로 한국 교회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초중고 장래희망 직업에 대한 인식 조사
1인당 노동 소득과 소비 조사(2016 국민이전계정)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장래희망 직업, 초등학생 1위는 '운동선수', 중고생 1위는 '교사'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을 질문한 결과, 초등학생은 '운동선수', '교사', '크리에이터' 순으로, 중학생은 '교사', '의사', '경찰' 순으로, 고등학생은 '교사', '경찰관', '간호사' 등의 순으로 응답함
- '크리에이터'는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등을 포함하는데, 최근 초등생 사이에서 '크리에이터' 선호도가 크게 올라감
- 10년 전에 비해 초등학생은 '크리에이터',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중학생은 '심리상담치료사',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고등학생은 '화학공학자', '연주자·작곡가', '마케팅·홍보 관련 전문가'가 20위권에 등장하는 등 희망 직업이 다양해졌음을 보여줌

[표] 학생의 희망 직업 현황(상위 5위) (순위)

년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1위	교사	운동선수	교사	교사	교사	교사
2위	의사	교사	의사	의사	간호사	경찰관
3위	요리사	크리에이터	경찰	경찰관	회사원	간호사
4위	과학자	의사	공무원	운동선수	의사	컴퓨터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5위	가수	조리사(요리사)	요리사	뷰티디자이너	공무원	군인

*자료 출처 : 교육부,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2019/12.11(전국 초·중·고 학생/교사/학부모 총 50,800명, 온라인 조사, 2019.06.18.)
 ** "뷰티 디자이너"는 헤어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타투이스트, 뷰티 매니저 등을 포함함.

● 청소년의 장래 직업,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임

- 학생이 희망 직업을 알게 된 경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부모님'이 1위이고, 고등학생은 '부모님'이 3위로 응답되어, 한 사람이 장래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가는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희망 직업을 알게 된 경로(상위 3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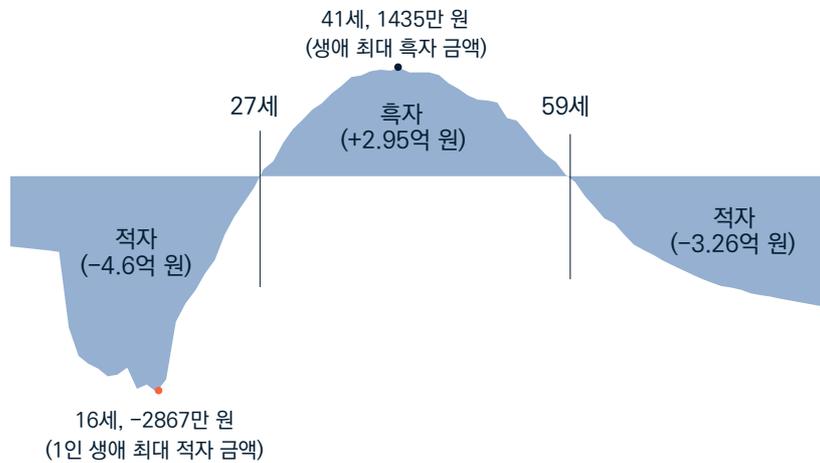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교육부,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2019/12.11
 (전국 초·중·고 학생/교사/학부모 총 50,800명, 온라인 조사, 2019.06.18.)

2 노동 소득만으로 산다고 하면 한국인은 적자 인생!

- 1인 생애 주기로 볼 때 0~26세까지 적자이고, 27~58세까지는 ‘흑자’였다가, 59세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됨
- 인생 최대 적자 연령은 16세(-2867만 원), 최대 흑자 연령은 41세(1435만 원)임
- 2016년 기준으로 한 사람이 인생을 산다고 가정하면 0~26세에는 4억 6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27~58세에 2억 9500만 원을 벌고, 다시 59세부터 85세 이상까지는 3억 2600만 원의 적자가 쌓임. 평생 일해도 노동소득만으로는 4억 9000만 원의 적자를 보는 셈임

[그림] 1인 생애 주기별 손익(노동소득액- 소비액)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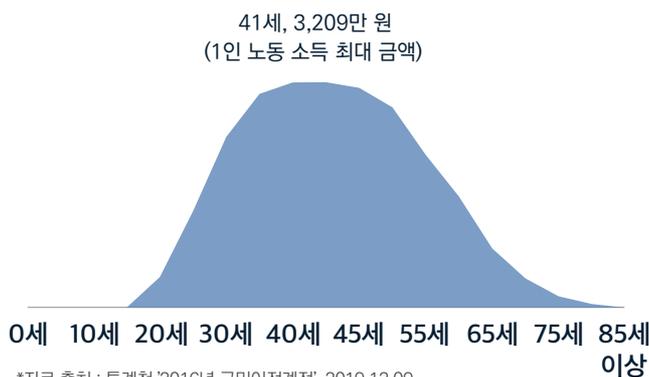
0세 6세 12세 18세 24세 30세 36세 42세 48세 54세 60세 66세 72세 78세 85세 이상

*자료 출처 : 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2019.12.09.
 **통계청 자료 그래프와 달리 이해하기 쉽게 적자는 아래로, 흑자는 위로 표시하였음
 ***노동소득은 자본소득과 이전(移轉, transfer) 소득을 제외한 노동 서비스의 수익으로 구성된 소득임

● 1인당 노동 소득은 41세에 3,209만 원으로 가장 높음

- 1인당 노동 소득은 17세에 55만 5천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금액이 올라가다가 41세에 3,209만 원으로 최대에 이른 후 하락함

[그림] 1인당 노동 소득 (만 원)



*자료 출처 : 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2019.12.09.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공명지조(共命之鳥)'

시사저널_2019.12.16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공명지조’”



1인당 국민소득 6.25이후 500배

연합뉴스_2019.12.19

“한국 1인당 국민소득, 6·25 이후 500배로 증가”



남녀 간 폭력 문제 심각

경향신문_2019.12.11

“최소 2.3일마다 1명의 여성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죽거나 다쳤다”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 실태

중앙일보_2019.12.18

“유명인 따라 극단선택..20대 여성 다음엔 50대 남성 많다”



한국인, ‘나홀로 여행’ 세계 1위

중앙일보_2019.12.13

“외롭고 무섭다면서...한국인 ‘혼행’ 희망 세계 1위”



한국에서 부자되는 방법

중앙일보_2019_12.17

“잘 살수록 빚내서 집 샀다...초유의 대출금지 대책 부른 ‘통계’”

스토리가 있는 기사



‘미코노미’ 트렌드(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선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 행태)

매일경제_2019.12.16

“나를 위해선 아낌없이 쓴다... 올해 ‘미코노미’ 열풍



2020년 북한의 선택

중앙일보_2019_12.18

“[중앙시평] 김정은의 2020년”



교회의 혁신

국민일보_2019.12.18

“[칼럼] 교회, 본질은 고수하되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히 바꿔야”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대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 · 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목회데이터연구소 홈페이지(www.mhdata.or.kr)에 가입하시면, 위 자료를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다운로드 가능).

+ 과거 자료는 홈페이지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